

19. 양평군

1) 운계서원(雲溪書院)



〈사진 19-1-1〉 운계서원

■ 지정사항 : 문화재자료 제18호

■ 소재지 :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산4-2번지

조선 명종 때의 학자인 조육(趙昱, 1498~1557)을 기리는 사우이다. 1654년(효종 5)에 그의 제자들이 처음 건립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후에 다시 지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조육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마다하고 용문산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기르는데 전념하였다. 인근에 그가 은거한 퇴촌마을과 세심정이 있고, 무덤도 남아있다. 현재 서원은 재실 한 채와 사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당 본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측면 주칸은 좁지만 같은 너비이다. 자연석을 외벌대로 쌓은 기단 위에 다듬은 원형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초익공을 결구하였는데 촛가지의 형태가 기둥마다 다른 것으로 미루어 여러 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서리 익공은 이익공처럼 보이지만 촛가지만 이단으로 만든 것이다. 창방 상부와 장혀 사이는 소로로 받쳤다. 전면은 모두 네짝 띠살분합문을 달고 좌측면에 외쪽문을 달아 평시에 출입한다. 나머지 벽은 화방벽을 높게 쌓았다. 홀처마에 한식기와를 오려 팔작지붕을 만들었는데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는 끝에 망와를 세우고 기왓골은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고막이는 통풍을 위해 트여 있고 바닥은 마루를 깔았다. 안에는 조육을 포함한 6인의 신위를 봉안하고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있다.

2) 양근향교(楊根鄉校)



〈사진 19-2-1〉 양근향교

■ 지정사항 : 문화재자료 제19호

■ 소재지 :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817-1번지

중종 때 지방민의 교육과 현유를 모시기 위해 창건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향교의 위치를 군 서쪽 3리 되는 곳으로 적고 있어 임진왜란 이전에 양근지역에 향교가 있었다고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출입문과 명륜당, 협문, 동재와 서재, 내삼문, 동무와 서무, 대성전이다. 전체적으로 세 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출입문을 들어서면 명륜당 일곽이 있고, 명륜당 옆으로 담을 돌리고 협문을 내어 뒤로 동재와 서재 권역이 있다. 안으로 가면 내삼문 좌우로 담을 쌓고 대성전 일곽을 경계짓고 있다. 지형에 따라 강당인 명륜당을 앞에, 제례공간인 대성전을 뒤에 둔 전학후묘(前學後廟)배치이다. 약간 기울어졌지만 거의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왼쪽 3칸은 마루를 들이고 오른쪽 1칸만 방을 만들었다. 마루 부분은 머름대를 돌렸다. 자연석을 허튼층으로 높게 쌓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워 상부구조를 결구하였다. 처마는 홑처마로 한식기와를 올려 맞배지붕을 만들고 측면은 풍판을 설치하였다.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망와를 세우고, 기왓골은 막새로 마감하였다. 마루에는 판장문을 달고 방은 띠살문을 달았다. 동재와 서재는 명륜

당 뒤에 있다.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삼량가에 납도리를 결구하고 흘처마를 올린 맞배집이다.

대성전 권역은 솟을문인 내삼문을 통해 들어가면 좌우로 각각 동무와 서무가 있다. 두 건물은 규모와 형식이 같은데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맞배지붕집이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측면 칸의 너비는 같다. 장대석을 두벌대 쌓은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워 초익공을 결구하였다. 가구는 오량가로 종보는 판대공으로 받쳤다. 겹처마에 한식기와를 올려 맞배지붕을 만들고 측면은 풍판을 달았다. 용마루와 내림마루 끝은 망와를 세우고 기왓골은 와구토로 마감하였으며 용마루는 양성하였다. 전면은 궁판을 둔 두짝 띠살문을 달았다. 나머지 벽체는 화방벽을 쌓았다. 내부는 트여있고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바닥은 전돌로 깔았다.

3) 지평향교(砥平鄕校)



〈사진 19-3-1〉 지평향교 대성전

■ 지정사항 : 문화재자료 제20호

■ 소재지 : 양평군 지세면 지평리 343번지

지평향교는 1773년(영조 49)년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현 남쪽 1리 지점에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조선 초에도 향교는 있었다고 보인

다. 하지만 내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많지 않다.

대개 향교는 제향과 강학을 위한 두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선 시대에는 지형이 높은 뒤편에 제향공간을 두고 앞에 강학공간을 두는 예가 많은 편이다. 지평향교는 나지막한 구릉지에 자리잡고 있고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지평향교의 건물은 대성전과 명륜당, 그리고 내·외문이 있을 뿐으로 동무와 서무, 동재와 서재는 없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장대석을 두벌대로 돌린 기단 위에 다듬은 둥근 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워 구조를 결구하였다. 처마는 겹처마

이며 맞배지붕을 올려 측면은 풍판을 달았다. 전면은 띠살분합을 달고 측면은 화방벽을 쌓았다. 전면은 3칸 모두 궁판을 둔 두짝 띠살문을 달았는데 가운데 칸은 네짝이다. 1991년에 대성전 주변에 배수로를 신설하고 대성전의 벽체를 보수하였다.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가운데 6칸 대청을 두고 좌우는 방을 들였다. 커다란 자연석을 외벌대로 돌려 기단을 만들어 자연석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워 납도리를 결구하였다. 홑처마이며 지붕은 팔작으로 만들고 양쪽 박공에는 벽돌로 처리하였다. 가구구조는 무고주 오랑을 결구하였는데 종보와 대들보 사이는 거의 붙어있다. 종도리 하부는 키가 높은 판대공을 세워 받치고 있다. 명륜당 앞에 있는 외삼문은 솟을문 형태이다.



〈사진 19-3-2〉 지평향교 명륜당

4) 보산정(寶山亭)

■ 지정사항 : 향토유적 제11호

■ 소재지 :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산33-2번지

보산정을 처음 세운 것은 고려말의 일이다. 공민왕 때 무안 박씨의 선조인 송림공(松林公)은 정계의 혼란을 피해 이곳으로 낙향하고 시화장으로 건립한 것이 바로 보산정의 시작이다. 이후 여러 차례 다시 지어 현재까지 모습을 남기고 있다. 정자 주변은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용의 전설이 깃들여진 연못이 있다.

후손 가운데 송림공의 6대 손인 박원겸(朴元謙)은 이곳에서 수학하였다. 그의 신도비가 정자 맞은편에 남아있다. 1514년(중종 9)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이조참판, 사예 등을 거쳤다. 신도비의 몸돌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세워진 것은 1857년(철종 8)이다. 글은 홍직필이 짓고, 글씨는 심의면이 썼다.

지금 보산정건물은 1955년에 개축하고, 1974년 무안 박씨 종중에서 다시 지었는데 시



〈사진 19-4-1〉 보산정 전경



〈사진 19-4-2〉 보산정 근경

멘트 콘크리트조로 지어져 제 모습을 잃었다. 정면 2칸, 측면 2칸이다. 구조체는 시멘트 콘크리트조로 형성하였는데 기둥은 원형에 장혀를 받친 굴도리를 결합한 모양이다. 겹처마에 지붕은 한식기와를 올려 팔작지붕을 만들었다. 내부는 평천장으로 만들고 입구를 제외한 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조로 만든 난간을 돌렸다. 외부는 단청을 시채하였다. 정면 좌측 칸 상부에 보산정이란 현판이 걸려있다.

5) 태풍당(澤風堂)



〈사진 19-5-1〉 태풍당

■ 지정사항 : 향토유적 제16호

■ 소재지 :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314번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이식(李植, 1584~1647)이 자신의 학문연구와 제자양성 및 자손교육을 위해 세운 서당(書堂)이다. 처음 세운 것은 1619년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개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당이 있는 쌍학리 안골마을은 덕수 이씨 집성촌이다. 마을 입구에 ‘덕수이씨세장비(德水李氏世藏碑)’가 세워져 있고 안골 오른쪽 능선에는 이식 자신과 부친 이안성 등의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식의 호는 태당, 본관은 덕수이다. 1610년(광해군 2) 문과에 급제하고 대사성, 대제학 등을 거쳤다. 이조참판으로 있을 때 척화를 주장하다가 김상헌과 함께 심양에 잡혀있다가 탈출해서 귀국하였다. 이후 이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정이다.

현재 태풍당은 최근에 보수한 것으로 누각 형태의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인데 주칸은 5자(1,520mm)로 좁은 편이다. 한 가운데 사방 1칸은 온돌방을 들이고 나머지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모서리 기둥보다 가운데 기둥은 크기가 작다. 장대석 기단 위에 방형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워 상층 마루 귀틀을 짰다. 높은 귀틀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난간 역할을 한다. 겹처마에 기와를 올려 팔작지붕을 만들었는데 지붕선은 매끄럽지 않다. 사다리를 사용해서 위로 오르내린다. 방안에는 갓을 비롯한 태당의 유품 몇 점이 보관되어 있다.

6) 수곡서원(水谷書院)



〈사진 19-6-1〉 수곡서원 사당

- 지정사항 : 향토유적 제20호
- 소재지 : 양평군 지제면 수곡리 633번지

1934년에 쓴 「수곡서원연혁」에 따르면,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권경우(權景祐, ?~1498)와 권경유(權景裕)를 모시기 위한 곳으로 지었다. 현재 건물은 1874년(고종 11) 무렵 유생들이 주선하여 세웠다고 하며, 이후 1922년에서 1930년에 걸쳐 공사를 하였다. 서원의 현액은 의친왕 이강의 글씨로 전하고 있다.



〈사진 19-6-2〉 수곡서원 강당

권경우의 본관은 안동으로 1470년(성종 1) 별시문과 병과에 급제하고, 봉교를 지냈다. 이후 정언, 검찰관, 서장관, 수찬, 경연시독관, 형조참의, 도승지, 천주사 등을 거쳤다. 1498년 대사헌으로 있을 때 연산군의 난정을 직언하고 임사홍 등을 탄핵하다가 파직되었다. 형제인 권경유는 1485년(성종 16)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후 교리와 제천현감을 지냈다. 사관으로 있을 때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史草)에 실은 사실이 발각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나 김일손 등과 함께 사형되었다. 중종반정 후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은 강당과 내삼문, 사우 등이며 전면에 관리사 겸 후손의 거처가 있다. 나지막한 구릉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앞쪽에 강당, 뒤쪽에 사당을 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취하고 있다. 서원 아래쪽에 권경우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1.5칸으로 가운데 대청을 두고 좌우로 방을 들였다. 낮은 자연석 초석 위에 방형기둥을 세우고 납도리를 결구한 민도리집이다. 홀처마이며 가구는 오랑을 짜서 팔작지붕을 형성하였다.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끝은 망와를 세우고 기왓골은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사우를 내삼문 좌우로 담을 둘러 별도로 일곽을 이루고 있다. 1976년에 보수한 내삼문은 솟을문 형태로 축대 위에 세워져 있다. 사우를 정면 3칸, 측면 2칸이나 측면 칸 너비가 좁다. 낮은 기단 위에 원형주좌를 새긴 다듬은 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워 초익공을 결구하였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창방 상부는 첨차형 부재를 2개소씩 받쳤다. 겹처마에 한식기와를 올려 맞배지붕을 만들고 좌우는 풍판을 달았다. 각각의 마루 끝은 망와를 세우고, 기왓골을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전면에는 각 칸마다 궁판을 둔 네

작 띠살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벽은 화방벽으로 쌓았다. 가운데 칸에 수곡서원이란 현판이 걸려있다.

7) 세심정(洗心亭)



〈사진 19-7-1〉 세심정 전경



〈사진 19-7-2〉 세심정

■ 지정사항 : 향토유적 제23호

■ 소재지 :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산13번지

세심정은 학자로서 조광조의 수제자로 이름 높았던 조옥(趙昱, 1498~1557) 선생이 은거하며 제자들과 도학을 강론하던 정자이다. 기묘사화 즈음에 모친상을 입었던 선생은 용문산에 머물면서 마을 이름을 퇴촌(退村)으로 불렀다. 세심정 입구 도로변 자연암반에는 ‘평양조씨세세동구(平壤趙氏世歲洞口)’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조옥 선생의 필적이라고 한다.

세심정을 지은 것은 1561년(명종 16)의 일이다. 정자는 퇴촌마을 입구

야트막한 동산 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축대 위로 길게 이어진 계단으로 오르내린다. 앞에 연못이 조성되어 있고, 주변은 울창한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건물은 1940년대에 중수한 것으로 전한다.

건물은 6각형 평면이다. 거칠게 다듬은 초석 위에 원기둥을 세우고 장혀를 받친 납도리를 결구하여 구조체를 만들었다. 처마는 홀처마지만 처마내밀기는 긴 편으로 추녀 가운데 부분에 활주를 세워 받쳤다. 활주는 6각형을 다듬은 초석 위에 6각형을 치목한 기둥을 세웠다. 지붕은 모임지붕으로 가운데 절병통을 세우고 추녀마루 끝은 망와를 놓고 나머지 기왓골은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각 칸에는 머름을 설치하고 문틀이 남아있으며 문틀과 장혀 사이에는 소로를 놓았다. 상부 문틀을 서로 교차시켜 돌출시켰는데 마구리는 초각하였다. 천장은 반자를 설치하였고 바닥은 마루를 들었으며 건물 외부는 쪽마루를 빙 돌려 설치하였다.

8) 봉황정(鳳凰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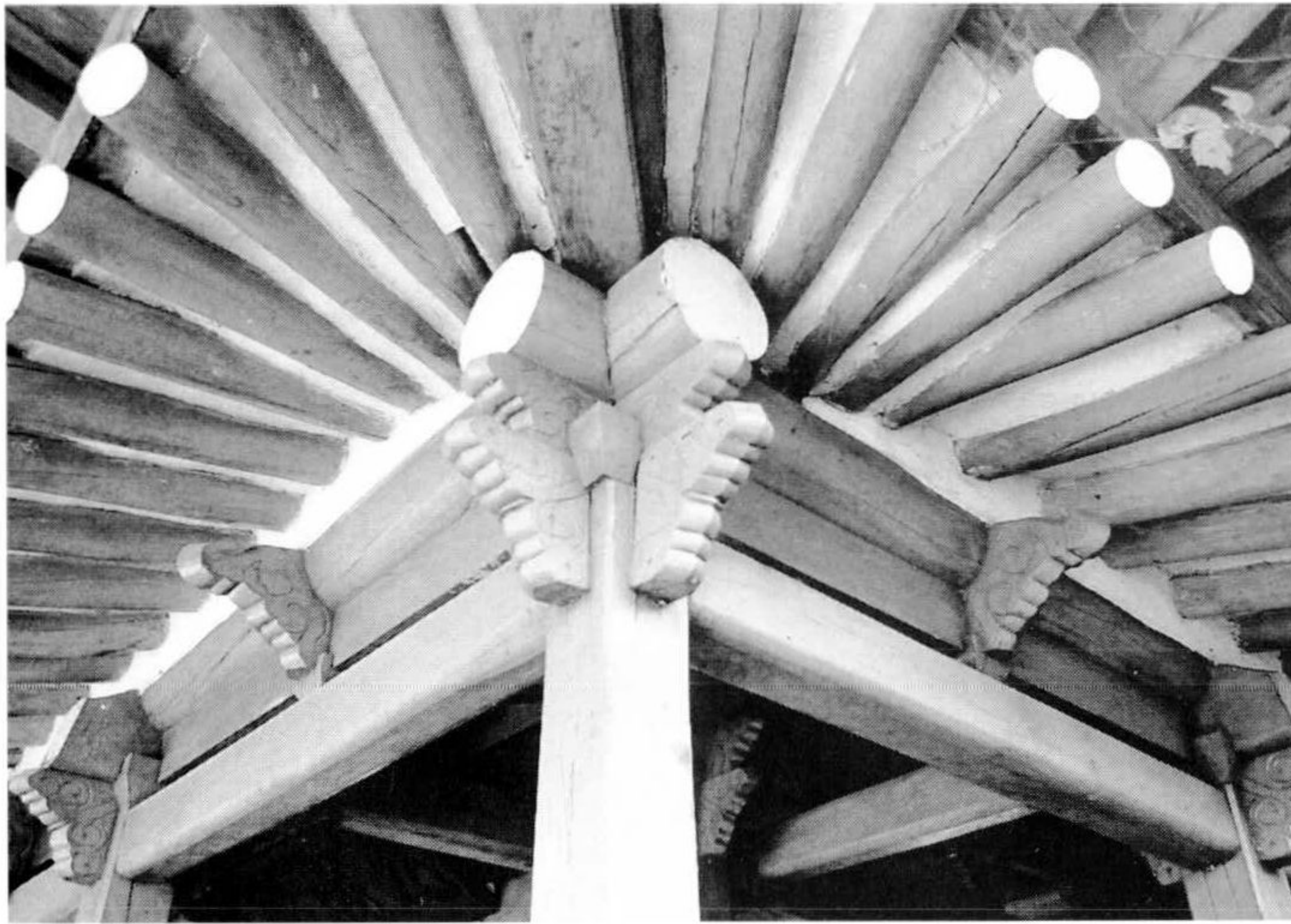


〈사진 19-8-1〉 봉황정 전경

■ 지정사항 : 향토유적 제24호

■ 소재지 :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산239-1번지

봉황정은 1624년(인조 2) 남원 양씨인 양응청(梁應淸)과 양응함(梁應涵)이 함께 창건하였다. 이후 양씨 문중과 인근 청소년의 교육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여기에서 충장공 양헌수(梁憲洙)를 비롯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었다. 또한 이항복, 이식, 김창흡, 이중하 등이



〈사진 19-8-2〉 봉황정 익공 세부

이곳에 들러 지은 글이 지금도 남아있다.

정자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절벽 위의 천연의 경지이다. 봉황정이란 현판은 입구 출입문에 걸려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정상부에 남취정 현판을 건 정자가 있다. 남취는 봉황이 천길을 날다가 덕이 빛나는 것을 보고 내려앉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 기단 위에 올려져 있다. 방형기둥 위에 몰익공을 결구하고 도리는 굴도리를 썼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창방 상부에는 첨차형 부재를 놓았는데 하부는 소로로 받쳤다. 귀처마는 선자연으로 꾸미고 겹처마이며 기와를 올려 팔작지붕을 만들었다. 내부 바닥은

마루를 꾸몄다.

안에는 「남취정중수기」를 비롯한 기문과 시를 적은 현판들이 안에 걸려있다. 중수기에 따르면, 1790년(정조 14) 중수하였다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는데 1966년 양씨 문중에서 옛 규모대로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한다.

9) 택승정(澤升亭)



〈사진 19-9-1〉 택승정 전경

■ 지정사항 : 향토유적 제25호

■ 소재지 :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산175-3번지

양성지(梁誠之, 1415~1482)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원, 호는 눌재이다. 1441년(세종 23) 과거에 급제하여 경창부승과 성균주부, 집현전 부수찬, 교리, 이조판서, 대사헌, 홍문관재학, 공조판서 등을 거쳤다. 문신이면서도 군비확충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궁술을 연마하던 곳에 세운 것이 바로 택승정이다.

남원 양씨들은 인근에 있는 봉황정에서 글을 읽고, 이곳에서 궁술을 익혀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길렀다고 한다.

「택승정기」에 따르면 현재 건물은

1830년 광탄리의 양씨들이 본래 있던 활터에 창건하고, 1840년 병사 양주태가 현판을 걸었다고 한다. 택승의 의미는 못가에서 활을 익히는 것은 선왕의 법도이며, 예절을 지켜 정자에 오르내리는 것은 군자의 도리라고 한다.

보호철책에 둘러싸인 정자 1동과 1996년에 세운 양헌수(梁憲洙)의 신도비가 서있다.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자연석 초석 위에 원기둥을 세워 굴도리를 결구하였다. 홀처마에 기와를 올려 팔작지붕을 만들었다. 가구를 보면, 대들보 두 개를 걸고 좌우는 퇴량을 연결하였다. 대들보 위로 동자주 2개를 놓고 종보를 걸어 사각틀을 만들고 그 안은 반자틀로 마감하였다. 귀서까래는 선자연으로 구성하였다. 내부 바닥은 마루를 들이고 정면 가운데 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난간을 돌렸으며 안에 「택승정기」를 걸어 두었다.



〈사진 19-9-2〉 택승정 상부구조

10) 대성사(大成寺)

■ 지정사항 : 전통사찰

■ 소재지 : 양평군 지제면 송현리 산91번지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의 사찰이다. 소규모 사찰로 구체적인 역사나 유물은 거의 없다. 『전통사찰현황』(1997)에 의하면, 약 150년 전 송현리마을에 사는 정씨의 꿈에 보살이 나타나서 '나의 미륵을 넓적한 바위가 있는 곳에 옮겨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논에서 출토된 보살상을 지금 절자리에 모시고 사찰을 지은 것이 시초라고 전하고 있다.

이후의 역사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근래 들어 1917년 대웅전과 칠성각을 지었으나 한국전쟁 때 칠성각은 소실되고 대웅전만 남았다. 1953년에 요사채와 미륵전을 지었고, 1990년에 삼성각을 재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으나 현재 어느 건물에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주불전의 현판은 팔상전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불전의 경우 현판이 걸



〈사진 19-10-1〉 대성사 대웅전

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절 안에 있는 팔상전, 산신각, 요사채 등의 건물을 보면 모두 격식을 갖추지 않은 지극히 소박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팔상전은 요사채 위쪽에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양철을 얹은 팔작지붕집이며, 굴도리를 쓰고 보아지에 용을 새겼다. 산신각은 사방 1칸 규모로 시멘트 기와를 올려 팔작지붕을 이루었다. 요사채는 워낙 변형이 심해 제 모습을 알기 어려운 지경이다.

11) 사나사(舍那寺)

■ 지정사항 : 전통사찰

■ 소재지 :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04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로서 용문산 자락에 있다. 창건시기와 창건주에 관한 사항은 『봉은본말사지』, 「사나사」에 923년(신라 경명왕 7) 대경(大鏡) 대사와 제자 융천(融闡) 등이 처음 절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대경대사 여엄(麗嚴, 862~930)은 중국에서 돌아온 후 용문산 보리사(菩提寺)에 주지로 있었으며, 913년 용문사를 창건했다고 하므로 그가 사나사를 세웠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때 노사나불상과 오층석탑을 조성하고 절 이름도 사나사로 짓는데 보신불(報身佛)인 노사불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하였



〈사진 19-11-1〉 사나사 대웅보전

음을 알 수 있다.

고려말 1367년(공민왕 16)에 태고(太古) 왕사 보우가 중창하였는데 140여칸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한다. 1383년 (우왕 9)에는 원증 국사 즉 태고의 석종(石鐘)을 만들고, 3년 뒤인 1386년에 탑비를 세웠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나사원증국사석종명병서(舍那寺圓證國師石鐘銘并書)」에 자세하게 적혀있다. 보우(1301~1382)는 공민왕 때 불교중흥에 힘쓴 승려로 용문산 북쪽 기슭에 있던 소설암(少雪庵)에서 입적한 후 중흥사에 탑을 세우고, 양산사와 청송사, 태고암, 사나사에 사리를 분장하였다. 이렇게 사후에 이곳에 부도와 탑비를 조성하였다는 것은 그와 사나사와의 관계가 남다른 것을 시사한다.

고려말 이후 조선 중, 후기까지 사나사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미지산에 있다는 내용 밖에 없다. 임진왜란의 병화를 피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었고 1608년에 한방손(韓芳孫)이 재건하였다. 1773년(영조 49)에는 군내에 살던 사람들이 당산계를 조직하여 절에 토지를 시주하였는데 그 사실을 기록한 「당산계불량비」가 경내에 서있다. 하지만 『여지도서』와 『가람고』, 『범우고』 등의 기록에는 모두 미지산에 있다는 내용 뿐으로 당시 절의 사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근대에 들어 1936년에 광명전을 중건하였다. 이때 상황은 『봉은본말사지』, 「사나나중 건상량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1907년 정미의병 때 일본인들에 의해 용문산의 사찰은 대개 큰 피해를 보았다. 예외 없이 사나사도 화재를 당해 혹독한 피해를 입었고 타다 남은 것으로 볼품없이 건물을 지어 겨우 명맥을 이었으며 30여 년 뒤에 광명전을 지었고 조사전 5칸도 함께 세웠다. 이에 앞서 1909년에는 계현(戒憲)이 대방 15칸을 복구하였다.



〈사진 19-11-2〉 사나사 함씨각

하지만 사나사는 한국전쟁으로 전소되고 1956년에 들어 대웅전, 산신각, 대방을 재건하고 함씨각을 지었으며 1993년에 대적광전을 세우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

용문산 자락의 평탄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완만한 경사지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하였으며 전면에 계곡이 흐르고 있다. 일주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왼쪽에 요사채와 대방이 있고, 오른쪽에 미타전, 함씨각, 원증국사석종비, 산신각, 원증국사석종이 종렬로 늘어서 있다. 대부분 새로 지은 건물이므로 간략하게 규모 정도만 알아보기로 한다. 대적광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팔작지붕집이고, 미타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초익공 팔작지붕이다. 함씨각(咸氏閣)은 사나사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전각으로 함씨의 원당이다. 1956년 재건 때 함씨 후손이 불사한 건물로 안에 함씨 조상의 영정을 모셨다. 이 건물의 존재로 인해 고려 초기 여염과 태조, 양평지방의 호족인 함규(咸規)와의 관계는 물론 그의 원당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유물을 보면 1383년에 조성된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인 원증국사석종(유형문화재 제72호), 1386년에 세운 원증국사석종비(유형문화재 제73호), 용천리 삼층석탑(문화재자료 제21호), 조선 후기의 『묘법연화경』 등이 있다. 이외 고려 초기에 제작된 철조여래좌상은 정미의병 때 화재를 입어 몸체 일부와 머리만 남아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대부분 파손된 채 1960년까지 법당 뒤편에 방치되어 있었으나 언젠가 사라지고 없다.

12) 상원사(上院寺)

■ 지정사항 : 전통사찰

■ 소재지 :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산7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로 용문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기록을 토대로 상원사의 역사를 정리하면, 초창시기와 창건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고려시대의 상원사는 『태고화상어록부록(太古和尚語錄附錄)』에 짧게 언급되어 있는데, 1330년(충숙왕 17)에 보우(普愚) 화상이 이곳에 들어와 관음보살에게 예배하고 12가지 서원을 세웠다고 한다. 그는 양근현 대원리에서 태어났으며 용문산 내의 여러 사찰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고려말 상원사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상원사의 존재는 1379년 「지평현미지산죽장암중영기(砥平縣彌智



〈사진 19-12-1〉 상원사 전경

山竹杖菴重營記」에도 등장하고 있어 고려 말기에는 분명하게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봉은본말사지』에 의하면, 창건은 알 수 없으며 1398년(태조 7)에 조안(祖眼) 화상이 중건하였다고 한다. 이때 중건 규모는 확실하지 않고, 중건주 조안 화상은 정지 국사의 제자로 1395년에 같은 산에 있는 용문사 중창을 주도한 승려였다.

조선시대에는 왕실, 특히 효령대군(1396~1486)과 밀접한 관계로 인해 『조선왕조실록』에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세종실록』에는 1450년(세종 32)에는 구병수륙재(救病水陸齋)를 베풀게 하는데 이때 절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어느 정도 사세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단종실록』에는 1452년(단종 즉위)에 효령대군이 상원사 인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공장을 모아 종을 주조하는 중이며 이것을 상원사에 봉안하려고 하자 사헌부에서 저지하여 궁중에 두고 내리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제작된 종을 실제 보시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상원사는 곧 효령대군의 원찰로 알려져 있는데 『세조실록』에 상원사는 국가에서 창건한 것이 아니라 효령대군의 원찰(願刹)임을 밝히고 있다. 효령대군은 상원사 아래 마을에 별장을 짓고 자주 이곳을 이용하였는데 이런 이유로 그의 원찰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1462년에 상원사에 관음이 나타난 이적을 기록한 「관음현상기(觀音現相記)」(규장각 6611·6612)로 『한국사찰전서』에도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글과 함께 당시 상원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매우 주목된다. 비교적 높은 축대 위에 회랑을 돌리고 내부는 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전각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고려 후기부터 산간의 소규모 사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배치형식을 보인다. 기록에는 담화



〈사진 19-12-2〉 상원사 돌사자상

전(曇華殿) 위에 흰 구름이 위로 솟으면서 백의관세음보살로 변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림 중심에 정면 3칸 규모의 중층건물 뒤로 구름 위에 선 관세음보살상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중층건물은 바로 담화전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세조실록』에는 1463년(세조 9) 상원사의 승려가 관음보살이 현신하신 곳에 나아가서 이미 불전을 지었으나 불상을 만들지 못하였음을 아뢰었지만 세조는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다. 앞의 내용은 1462년에 관음보살이 현신하고 나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내부에 봉안할 불상을 제작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불상을 제작하였는지, 어떤지 전개된 상황은 알 길이 없다. 이후 『명종실록』에는 1553년(명종 8) 내수사에서 상원사 주변의 토지를 측량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까지도 상당한 사세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의 역사는 자세하지 않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가람고』 등에 미지산에 있다고 적혀있어 사찰의 명맥은 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대에 들어서 1907년(융희 원년)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상원사는 일본군에 의해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겨우 법당만 화를 면하였다. 1918년(대정 7) 대방(大房)을 중건하고 1934년에 객실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실되고 폐허처럼 남아있다가 1969년에 초막을 지으면서 다시 법등을 잇기 시작하였다. 현재 상원사의 모습은 1970년에 요사, 1972년 삼성각, 1975년 대웅전, 1977년에 용화전을 새로 지어 형성된 것이다. 계속해서 1998년에 요사채를 중수하고 1999년에 요사채 왼쪽에 선원을 새로 건립하였다.

산 중턱을 정비하여 조성한 계단식의 대지에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중심 좌향은 주로 남향이다. 불전은 대웅전 외에 삼성각, 용화전이 있고 요사채 몇 동과 선원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옛날 석축이 남아 있지만 최근 도량을 정비하면서 주변의 지형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곳곳에서 기와편과 자기편, 소량이지만 청자편도 발견되고 있다. 지금 절 안에는 여러 가지 석물이 남아 있다.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으나 돌사자상, 8각형 중대석, 8각형 하대석, 석등 옥개석, 8각형 받침돌 등이며 대석축단 계단 밑에는 석탑의 하부 부재로 추정되는 돌도 확인되고 있다.

13) 용문사(龍門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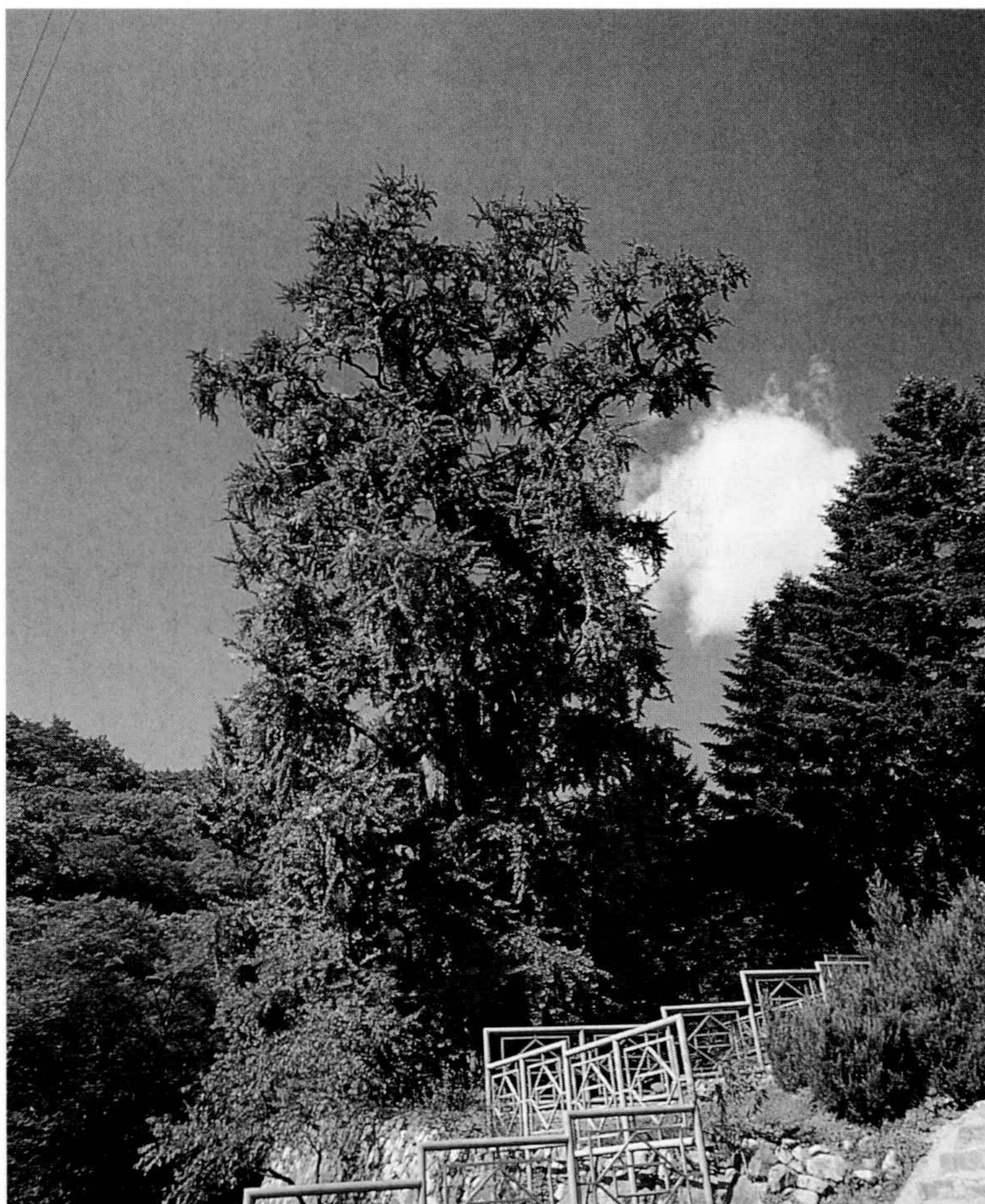
■ 지정사항 : 전통사찰

■ 소재지 :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62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말사로서 용문산에 있다. 절의 시작을 적은 기록은 『봉은본말사지』, 「용문사」에 913년(신라 신덕왕 2) 대경(大鏡) 대사가 처음으로 절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창건유래로 경순왕이 친히 행차하여 절을 창건하고 손수 나무를 심었다고 하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도 없다.

고려 말기에는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 절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1378년(우왕 4)에 지천(智泉)대사가 개풍 경천사(敬天寺)의 구씨원각대장경(具氏願刻大藏經)을 이곳으로 옮겼다. 이때 대장경 봉안을 위해 새로 전각을 짓는데 당시 정황은 이색이 쓴 「지평현미지산용문사대장전기」에 자세하게 적혀있으며 대장전의 규모는 3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1398년 왕사 자초(自超)는 회암사를 하직하고 용문사로 가기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절의 역사는 꽤 풍부한 자료가 남아있다. 『봉은본말사지』, 「용문사기」(1458년)에는 창건에 대해서 신라 때 창건되어 국중의 명찰이 되었다고 피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위의 기록은 주로 조선 초기에 치중하고 있다. 1446년(세종 28) 승하한 소헌왕후는 이듬해 수양대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을 위해 부처님 둘과 보살 8상을 만들어 용문사에 안치해달라고 하였다. 승려들은 불경에 근거하여 부처님 2위는 석가여래와 아미타불, 보살 8위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금강장보살, 제장애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을 조성하였는데 궁중에서 제작하였다. 경복궁 청연루(淸蓮樓)에서 봉안하고 재를 베풀고 공양하였으며 1447년 7월에 용문사로 이안하였다. 이때 보전(寶殿)을 개조하고 본래 봉안하던 불상은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지만 당시 개조한 보전의 성격이나 규모 등은 전혀 알 수 없다. 이어서 1455년(세조 1)에 전각을 다시 중수하였다. 세조는 1459년(세조 5) 동종을 주조하여 시봉하였는데 당시 상황은 『봉은본말사지』, 「용문사종기(龍門寺



〈사진 19-13-1〉 용문사 은행나무

鐘」에 기록되어 있다.

『봉은본말사지』에 수록된 「용문사중수기」는 임사홍이 쓴 것으로 1480년(성종 11) 시행된 대대적인 중수상황을 잘 적고 있다. 세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던 사찰임에도 불과하고 20여년이 지난 1480년 즈음 절은 지키는 사람이 없어 퇴락한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 정희왕후는 회암사 주지 처안(處安)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공사는 1480년에 착공하여 이듬해에 낙성하였는데 모두 옛 제도를 따랐으나 충루와 광하(廣廈), 융동(隆棟)과 후초(厚礎), 조각과 회화는 전보다 더욱 사치스러웠다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 용문사에 대한 기록은 전에 비해 적은 편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 적혀있다. 『숙종실록』에는 1695년(숙종 21) 용문사 범종이 땀을 흘리며 저절로 울렸다는 기록이 있다.

중창의 노력은 조선 말기에 들어 재개되는데 1893년(고종 30) 봉성(鳳城) 대사가 조대비의 도움을 받아 중창하였다. 하지만 1907년(융희 원) 정미의병 봉기 때 의병이 용문산에 집결했다는 것으로 인해 일본군에 의해 소실되었다. 이때 재가 된 전각은 대웅전, 동요사, 서요사, 나한전, 산신각, 공루(空樓), 어실각(御室閣, 세조 위패 봉안), 노전(爐殿), 범종루 등이다. 1909년에 취운대사가 대방(大房)을 중건하고 1910년에 칠성각을 옮겨 대웅전을 지었다. 1938년(소화 13)에는 대웅전과 어실각, 노전, 칠성각, 기념각, 요사채 등을 지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실되었으나 대웅전과 대방인 관음전만 화를 면했다. 1983년 범종각, 지장전, 일주문을 부분적으로 중수하고 관음전과 요사를 중건하였다. 1994년에 지장전과 대웅전을 완공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재 절 안에 남아있는 유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 관음전에 있는 관음보살좌상 가운데 1위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곳곳에 조선시대의 초석과 계단 및 소맷돌, 고막이석 등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계단 소맷돌에는 구름과 태극무늬를 새겨 왕실 후원으로 중건될 때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지국사부도(보물 제531호)는 높이 107cm로 나옹의 제자인 지천(1324~1395)의 부도이다. 지천은 경천사에 있던 대장경을 이곳으로 옮긴 장본인이다. 1395년(태조 4)에 입적하였는데 방형 기단 위에 팔각형 탑신과 옥개석을 올린 형태이다. 탑신 각 면에는 감실을 조성하고 문 모양을 새겼다. 부도 옆에는 탑비가 있는데 권근이 글을 지었고 1398년에 세웠다. 이밖에 피장자를 알 수 없는 조선시대 부도 5기가 있다. 수령 1100년 된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는 마의태자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